‘청산가리 막걸리’ 父女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범죄 증명 안돼” … 사건 다시 미궁

검찰 무리한 기소 도마위에

지난해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백모(60)씨 부녀(父女)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 부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백씨의 딸(27)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가 살해를 공모한 범행 동기에 의문점이 많고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의 증거 능력도 낮다”며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입 및 보관 경로 등 검찰 측의 증거도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백씨 부녀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 측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도 구입한 지 17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독성 여부 조차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59)와 주민 정모(68·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부녀 간의 공모에 의한 범죄로 판단, 지난 1일 공판에서 백씨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백씨 부녀는 기소된 이후 줄곧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해온 데다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의 효력 등을 놓고 의문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씨 부녀는 지난 1일 13시간에 걸친 10차 공판에서도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살해했다는 등의 검찰의 공소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백씨 부녀의 범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11차례에 걸친 공판을 벌인 끝에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들에 대해 내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재판부가 검찰 측 증거들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父女 석방 … 순천시 황전면 마을 주민 표정

무죄에 안도…또 조사받나 걱정

“빨리 진범 잡아달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백모씨 부녀가 18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건이 발생했던 순천시 황전면 소재 마을 주민들 표정에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했다.

이날 마을 입구의 슈퍼마켓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던 주민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또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했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류모(63)씨는 “백씨 부녀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며 “부녀가 무죄로 풀려나게 돼 다행이지만 또다시 주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6일 문제의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이모(여·77)씨는 “백씨는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며 “하루 빨리 무고한 사람이 아닌, 진범을 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건 당일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장모(여·77)씨와 함께 막걸리를 내뱉어 목숨을 구했다.

슈퍼마켓 주인 서모(여·60)씨는 “마을 주민 모두가 백씨 부녀가 범인이 아닐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며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백씨 부녀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다시 마을에서 함께 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하태민기자 ejkim@kwangju.co.kr

영광 금은방 강도 용의자

검문하다 눈 앞에서 놓쳤다

경찰, 공개수배 나서

공개수배된 ‘영광 금은방 3인조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의 검문을 뚫고 달아났다. 경찰은 동승자를 붙잡았으나, 정작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눈 앞에서 놓쳤다.

18일 영광경찰과 함평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함평군 나산 면사무소 앞 3거리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황금색 구형 SM 5 승용차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고모(37)씨 등 2명이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끝에 고씨는 붙잡았으나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은 놓쳤다. 앞서 이 경찰관은 “영광 금은방 강도사건 용의자가 도주 중”이라는 것을 함평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혼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고씨는 지난달 영광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용의자인 김모(42·사진)씨의 교도소 동기이며, 경찰은 달아난 남성이 김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점퍼와 코르덴바지 차림을 한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광주 종합터미널 방향으로 달아나던 중 오후 3시 30분께 광산구 소촌동 매일유업 4거리에서 내린 뒤 행방을 감췄으며, 경찰은 밤새 추적을 벌였다.

김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영광군 모 금은방에 침입해 2억1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용의자 2명으로부터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8일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김씨는 168㎝ 키에 보통 체격이다. 포상금은 500만원이다.

/이종행·김형호기자 golee@kwangju.co.kr

900만원 금목걸이 ‘슬쩍’

광주동부경찰은 18일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정모(16)군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15돈짜리 금목걸이 4개(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네팔 보낼 학용품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청소년적십자(RCY)단원들이 18일 오전 광주시 임동 적십자봉사관에서 네팔 등에 보낼 학용품과 일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억 꿔주고 60억 건물 ‘꿀꺽’

광주경찰, 사채업자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연 1천200%의 고금리로 1억원을 빌려준 뒤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자 시가 60억원짜리 건물을 가로챈 사채업자 박모(40)씨에 대해 강요·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목포시 하당에 지어진 7층짜리 메디컬센터 건물주 이모(35)씨에게 건물 3개층을 담보로 현금 1억원을 준 뒤, 갚지 못하자 수일 간격으로 변제 기일을 연장해주면서 추가담보를 설정해 시가 6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초 한 달 계약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이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이후 3~4일 간격으로 채무 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분양사무실 1~2곳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는 등 단 59일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씨가 가로챈 건물을 담보로 화순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요금 왜 많아?” 택시기사 폭행

쌍나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처음 승차지에 다시 다녀왔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택시운전 기사를 폭행한 또 다른 택시 기사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A택시 기사 안모(55·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17일 밤 11시20분께 북구 운암동 S은행 앞길에 정차된 B운수 강모(47)씨의 택시 안에서 강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

○…안씨는 이날 북구 동림동 한 식당 앞길에서 강씨의 택시를 잡아 탄 뒤 목적지에 다다라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으나 평소보다 두 배 가까운 8천원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안씨는 경찰에서 “강씨의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휴대전화를 놓아 두었던 식당에 다시 갔다 왔던 사실을 깜빡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장·교감에 뇌물 … ‘방과 후 학교’ 따내

사업자 영장·수사 확대

순천경찰은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D초등학교 곽모(66) 전 교장과 순천 J초등학교 박모(53)교감 등 전·현직 교장·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J초등학교 박모 교감을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순천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당시 이 학교 곽모 교장에게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5회에 걸쳐 현금 38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천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 여수, 광양지역 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공무원 합격생들은 진실을 안다! 왜 서울고시학원인가를!
→ 2009년 광주, 전남지역(국가직 포함) 행정직 151명 모집에 105명 합격, 70%합격점유율
→ 2008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60명 모집에 55명 합격, 92%합격점유율 (10년 모집 합격률)
→ 2009년 광주, 전남 소방직 132명 모집에 75명 합격, 57%합격점유율
2010년 소방직 3,215명 대규모 채용 [국가소방직 수험생 1위] 공경문 교수 특별초청!
7급공무원 팩수달 이론반 첫진도 개강 ▶ 2월 1일 (주/야간반 2개월완성)
7급공무원 문제풀이반 개강 ▶ 2월 1일 (1개월완성, 교재무료)
서울고시학원 전남대 후문앞 514-4560, kjgosi.co.kr
부산 9급/7급 독점권 MDPass 법학원
경찰합격의 새로운대안(seoulcop.co.kr)
서울경찰전문학원
최고의 합격률! 최상의 학습환경!
2010년 경찰시험일정
251-7959 (광주 북구청 건너편)